



에이프릴바이오 (397030)

아토피피부염 치료 가능성 확대

- 신약 후보물질 연구개발 전문기업
- 'APB-R3' 임상 2상 진행 중
- REMAP플랫폼 L/O 준비

신약 후보물질 연구개발 전문기업

에이프릴바이오는 2013년 교원창업 형태로 설립된 연구개발 중심기업으로, 인간항체 제작 기술과 단백질의약품 반감기 증대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 의약품 중 단백질 의약품에 속하는 항체치료제 및 지속형 재조합 단백질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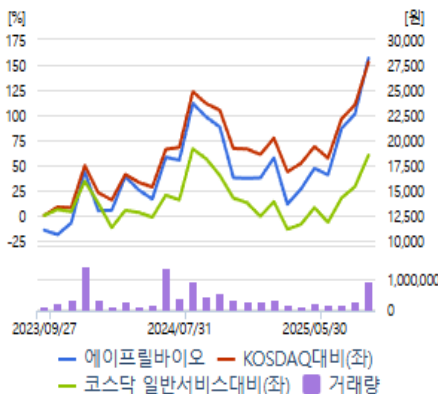
Not Rated(미제시)

KOSDAQ	863.11
시가총액(억원)	6,352
상장주식수(주)	22,566,429
현재주가(원)	28,150
52주 최고/최저 (원)	30,650 / 11,980
거래량(주)/거래대금(억원)	902,603 / 254
외국인 지분율(%)	1.08%
주요주주	차상훈 외 2인 20.17%

동사는 다양한 항체를 찾아 원하는 타깃 항원 결합 능력을 지닌 인간 항체 신약 후보물질을 획득할 수 있는 항체라이브러리(HubV Fab library) 기술, 당사 항체라이브러리로부터 선별된 혈청 알부민과 특이적 그리고 고친화도로 결합하는 인간 Fab 항체 절편(SL335)을 활용하여 약효단백질의 혈청 내 반감기를 증대시키는 지속형 원천 기술인 SAFA(anti-Serum Albumin Fab-Associated technology)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우수한 SAFA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자가면역질환, 염증질환, 암, 희귀질환에 대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있다. 현재는 개발한 물질에 대해 글로벌 기술이전을 추진하여 계약금, 마일스톤 등을 재투자(RIPCO)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는 FIPCO(Fully Integrated Pharmaceutical Company) 모델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주가/상대수익률

1 2 3



[기준: 2025.09.19]

'APB-R3' 임상 2상 진행 중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IL-18(인터루킨 - 18) 타깃에서 성과를 내면서 에이프릴바이오가 기술이전한 아토피 치료제 후보물질 'APB-R3(현 EVO301)'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IL-18은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사이토카인으로, 이를 차단하면 면역 과잉반응을 조절해 아토피피부염의 피부 염증과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다.

동사는 IL-18 타깃 기반 파이프라인 'APB-R3'를 미국 예비유에 기술 이전했으며, 현재 60명을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올해 3월 첫 환자 등록을 마쳤으며, 연내 혹은 내년 상반기 중 임상 결과를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 약물과 관련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적응증 확장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APB-R3'의 결과 또한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번 임상은 단순한 신약 개발을 넘어 아토피 치료제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도전으로 동사가 안정성과 효능을 입증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연월	매출액 (억원)	YoY (%)	영업이익 (억원)	당기순이익 (억원)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ROE (%)	EV/EBITDA (배)	주재무제표
2021. 12(A)	234.0		44.5	-527.1	-4,979	3,114			-242.98		IFRS별도
2022. 12(A)	2.0	-99.15	-114.7	-89.6	-458	3,274	N/A	2.68	-14.18	-10.74	IFRS별도
2023. 12(A)			-133.9	-141.3	-662	2,677	N/A	6.30	-22.27	-24.06	IFRS별도
2024. 12(A)	275.1		168.7	200.1	913	4,056	17.75	3.99	26.90	15.48	IFRS별도
2025. 12(E)	260.0	-5.50	145.0	180.0	797	4,781	35.33	5.89	18.00	34.47	IFRS별도
2026. 12(E)	330.0	26.92	170.0	190.0	833	5,132	33.78	5.49	16.81	29.68	IFRS별도
2027. 12(E)	550.0	66.67	360.0	350.0	1,535	6,667	18.34	4.22	26.02	13.71	IFRS별도

작성자: 오준호

info@svresearch.co.kr

자료: 네이버, FN가이드

REMAP 플랫폼 L/O 준비

REMAP(Recombinant and Evolved Multi-specific Antibody Proteins) 플랫폼은 에이프릴바이오가 덴마크 룬드벡, 미국 에보뮤에 각각 기술 이전한 SAFA 플랫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SAFA가 혈중 알부민 결합을 통해 약물 반감기를 늘리는 기술이라면, REMAP은 이중, 삼중, 최대 5중까지 결합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한번에 여러 타깃을 조준할 수 있다. 이는 기존 ADC/TCE의 한계를 뛰어넘는 멀티타깃 ADC, TCE 개발을 가능하게 할 기술이다.

REMAP-ADC는 현재 항암 후보물질을 중심으로 개념증명(POC) 연구를 마무리 중이다. 세포/동물 실험에서 암세포 사멸과 약물 투과율 개선을 확인했다. 내년까지 영장류(NHP) 독성시험을 진행하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선도 물질을 도출해 조기 기술이전에 나설 계획이다.

REMAP-TCE 역시 이중, 삼중 결합구조를 적용해 짧은 반감기와 비특이적 T세포 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CD28, 4-1BB 등 보조자극 신호를 제공하는 구조로 암 조직 특이적 T세포 활성화를 유도한다. 현재 삼중결합 TCE후보에 대한 동물 효능 평가를 진행 중이다. 2026년까지 영장류 독성시험과 특허출원을 완료해 글로벌 제약사와의 공동개발/ 라이선스 아웃 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모달리티에 계열 내 최고 신약을 지향 중이다. REMAP 물질은 향후 동사의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1. 파이프라인

Pipeline	적응증	타겟 물질	탐색	후보물질 도출	전임상시험	임상시험	진행현황
자체개발	 APB-A1 ②	자가면역질환 다수	CD40L			임상 1상 완료	파트너사 "룬드벡" 임상 1b상 시험 개시
	 APB-R3 ②	자가면역질환 스틸병 등 다수	1L-1B			임상 1상 완료	파트너사 "에보뮤" 임상 2a상 시험 개시
	APB-R4 ②	자가면역질환 다수	1L-2R			비임상 시험	비임상 예비독성시험 완료
	APB-CYTE	고형암	XX				-
	APB-ADC	고형암	XX				-
공동개발	APB-R2	남성불임	FSHR	세브란스 연구중심 정부과제 수행 중			Partner : Severance Hospital
	APB-R6	내분비질환	TSHR	세브란스 연구중심 공동연구 개발			Partner : Severance Hospital
	 APB-R5	고형암	XX	후보 물질 도출 중			파트너사 "유한양행" 최적 후보 물질 도출 중

자료: 에이프릴바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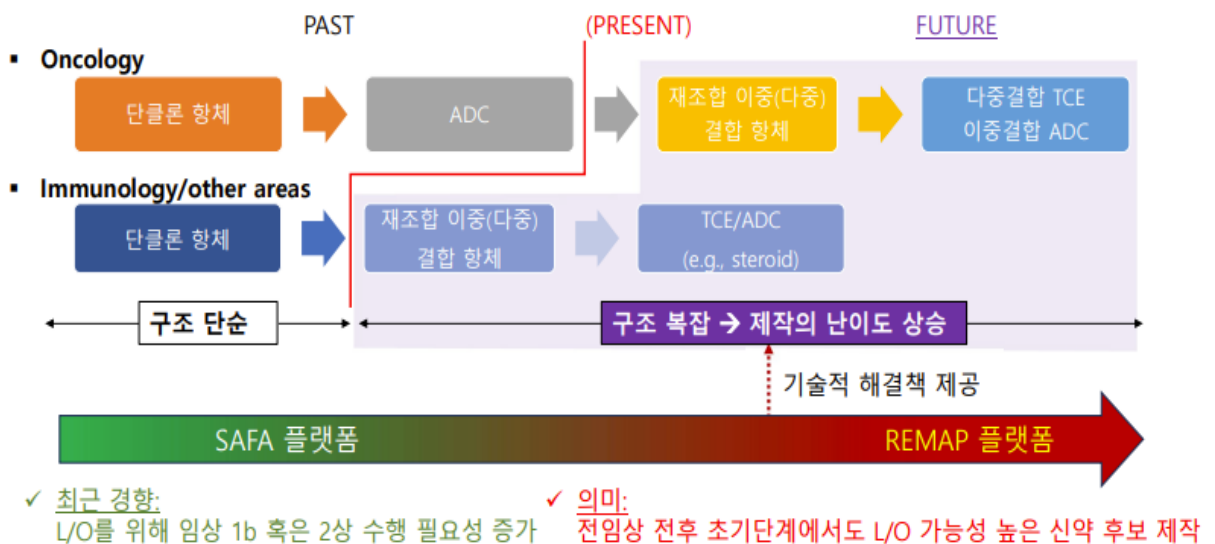
그림2. What is SAFA?



자료 : 에이프릴바이오

그림3. REMAP 플랫폼

최근 신약후보 트렌드 → L/O 가능한 항체 신약 후보의 분자 구조가 복잡해짐



자료 : 에이프릴바이오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오준호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5년 9월 19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오준호는 2025년 9월 19일 현재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투자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며, 주관적인 단순 탐방의견만을 게시합니다. 매수/매도 등 투자권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사자료는 투자자의 투자에 참고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자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SV 스타닝밸류 리서치